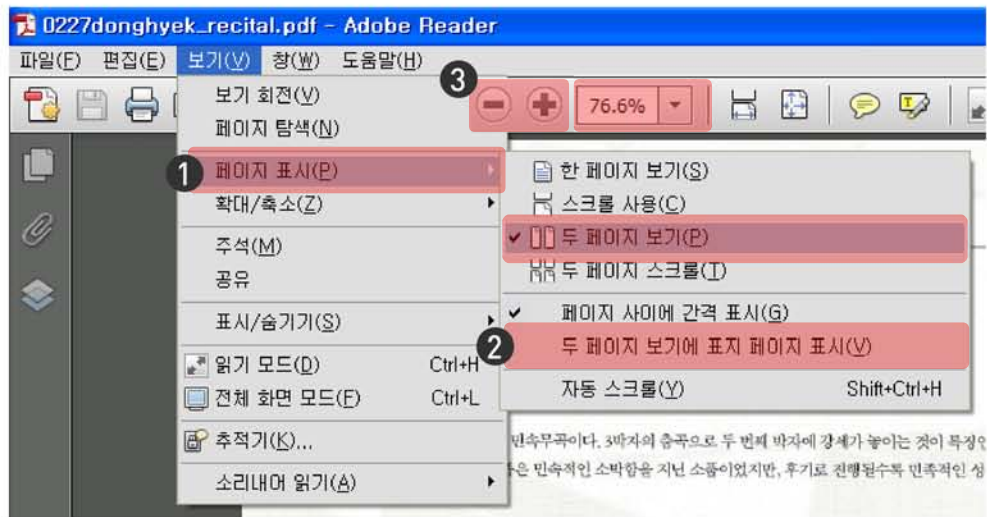


CREDIA는 보다 나은 서비스를 위하여, 공연의 프로그램북을 온라인으로 제공합니다.
아래 안내와 같이 설정해서 보시면 더욱 편하게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Guide 1 프로그램북 2페이지씩 보기 (프로그램북이 한 페이지씩 보일 경우)



- ① PDF reader 메뉴바_보기_페이지표시_두 페이지 보기 선택
- ② 메뉴바_보기_페이지표시_두 페이지 보기에 표시 페이지 표시 선택 해제
- ③ 원본 사이즈로 보기
 확대 및 축소는 -, + 버튼 클릭

Guide 2 프로그램북이 2페이지씩 보일 경우 다른 설정 없이 보셔도 편안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The XVI International

CREDIA
Tchaikovsky

Competition

CONTENTS

| | |
|------|----|
| 프로그램 | 2 |
| 곡목해설 | 6 |
| 프로필 | 10 |
| 프리뷰 | 16 |

| | |
|---------------|----|
| Program | 2 |
| Program Notes | 6 |
| Profile | 10 |
| Preview | 16 |

The XVI International Tchaikovsky Competition

제16회 차이콥스키 국제 콩쿠르 우승자 갈라 콘서트

2019년 10월 15일 (화) 오후 8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8PM Tuesday, October 15, 2019
Concert Hall, Seoul Arts Center

| | |
|------------------|--------------------------------|
| 지휘, 노리치카 이이모리 | Norichika IIMORI, Conductor |
| 피아노, 마오 후지타 | Mao FUJITA, Piano |
| 바이올린, 세르게이 도가딘 | Sergei DOGADIN, Violin |
| 첼로, 산티아고 카논 발렌시아 | Santiago CANON-VALENCIA, Cello |
| 첼로, 문태국 | Taeguk MUN, Cello |
| 디토 오케스트라 | DITTO Orchestra |

주최 **CREDIA MUSIC & ARTISTS**

후원 **KOREAN AIR 50**

표트르 일리치
차이콥스키

1840-1893
러시아

페초 카프리치오소 나단조, 작품 62 첼로, 문태국

피아노 협주곡 1번 내림나단조, 작품 23 피아노, 마오 후지타

- I. 느리지만 지나치지 않게, 매우 장엄하게
- II. 조금 느리고 단순하게
- III. 빠르고 열정적으로

I N T E R M I S S I O N

로코코 주제에 의한 변주곡 가장조, 작품 33

첼로, 산티아고 카논 발렌시아

보통 빠르기, 마치 느리게 걷듯이 - 보통 빠르기로 단순하게

변주 I. 주제의 템포를 유지하며

변주 II. 주제의 템포를 유지하며

변주 III. 음 하나 하나를 충분히 내면서 느리게

변주 IV. 느리고 우아하게

변주 V. 알맞게 빠른 속도로

변주 VI. 느리게

변주 VII. 빠르고 생기있게

바이올린 협주곡 라장조, 작품 35 바이올린, 세르게이 도가딘

I. 알맞게 빠른 속도로

II. 칸초네타: 느리게

III. 피날레: 매우 빠르고 생기있게

본 공연의 프로그램은 연주자의 사정에 따라 사전 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음악회가 시작되기 전에 휴대폰을 꺼 주시기 바랍니다.
음악회 중에는 일체의 촬영 및 녹음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2019 글로벌고객만족역량 조사
항공여객운송서비스 부문 1위 대한항공



DELHI

전설과 신비의 땅, 인도에 귀 기울이다

대한항공 델리 노선 매일 운항
델리에서 당신만의 인도 이야기를 시작하세요



www.koreanair.com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타지마할
Taj Mahal

Pyotr Ilyich
Tchaikovsky

1840-1893
Russia

**Pezzo Capriccioso for Cello and Orchestra in b minor,
Op. 62** Taeguk Mun, cello

Piano Concerto No. 1 in b b minor, Op. 23 Mao Fujita, piano

- I. Andante non troppo e molto maestoso
- II. Andantino semplice
- III. Allegro con fuoco

I N T E R M I S S I O N

Variations on a Rococo Theme in A Major, Op. 33

Santiago Canon-Valencia, cello

Moderato assai quasi Andante – Thema: Moderato semplice

Var I: Tempo della Thema

Var II: Tempo della Thema

Var III: Andante sostenuto

Var IV: Andante grazioso

Var V: Allegro moderato

Var VI: Andante

Var VII: Allegro vivo

Violin Concerto in D Major, Op. 35 Sergei Dogadin, violin

I. Allegro moderato

II. Canzonetta: Andante

III. Finale: Allegro vivacissimo

This Program is subject to change without any notice.

Before the concert begins, please switch off your mobile phones and electronic devic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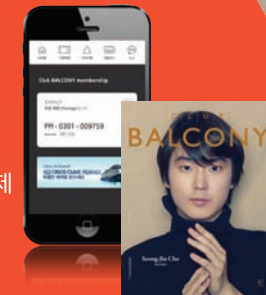
Recording and photographing are not allowed during the concert.

15만 공연애호가들의 선택 Club BALCONY가 제안하는 품격있는 문화예술의 경험과 서비스

클럽발코니와 함께 감동의 문화생활을 설계해보세요!

JOIN Club BALCONY

15만 공연애호가들의 선택 (예매고수의 노하우)
 크레디아 기획공연 5~30% 상시 할인
 나만의 비서! 티켓 오픈 무료 SMS 서비스
 문화애호가의 필수품, Club BALCONY 매거진 무료우송
 모바일 회원카드 확인 후 크레디아 기획공연 프로그램북 증정
 크레디아 기획공연 단독 선예매 및 예매, 취소, 티켓 배송 수수료 면제
 만료 후 재가입 시 할인 혜택



JOIN CIELOS Club

CIELOS 회원만을 위한 프라이빗 음악회, 전시회, лек처 문화행사 무료초대 (동반1인 포함)
 CREDIA의 엄선된 공연 패키지 30~50% 할인제공 및 좌석우위
 Club BALCONY 평생회원 자격

Upcoming Programs

클럽발코니 лек처 프로그램

클럽발코니 x 오드포트 친절한 디토씨의 음악여행

- ↳ 미샤 마이스키 & 무지크 콜레기움 빈터투어 | 10/17
- ↳ 안네 소피 무터 | 11/21
- ↳ 사라 장 | 12/19

CIELOS TOUR

빈 필하모닉과 함께 떠나는 유럽 크루즈 10박 12일 | 2020/9/19 ~ 9/29

*판매 오픈 예정



표트르 일리치 차이콥스키, 1840-1893

페초 카프리치오소 나단조, 작품 62

Pezzo Capriccioso for Cello and Orchestra in b minor, Op. 62

첫 곡으로 연주되는 <페초 카프리치오소>(1887)는 외면받고 있는 차이콥스키의 작품 중에서 구제받아야 할 작품으로 첫 손으로 꼽을 만한 작품이 아닐까 싶다. 차이콥스키는 1887년 5월부터 8월까지 빈을 중심으로 한 유럽여행에서 돌아온 후, 그의 가까운 첼리스트이자 뛰어난 실력을 지녔던 아나톨리 브란두코프(Anatoly Brandukov)를 위해 이 곡을 쓰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그의 친구이자 피아니스트로서 <밤의 꿈, Op. 19-1>(1873)을 헌정 받은 콘트라체프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왔는데, 병문안을 하는 중에도 작곡을 이어갔다. 이 작품을 지배하는 슬픔의 정서가 이와 관련이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 영향이 있었을 것이다.

<페초 카프리치오소>는 본래 첼로와 피아노를 위해 작곡되어 1888년에 브란두코프의 첼로와 차이콥스키의 피아노로 파리의 사적인 연주회에서 초연되었다. 그리고 작곡자에 의해 피아노 반주가 관현악으로 편곡되어 1889년 12월 7일에 모스크바에서 브란두코프의 첼로와 작곡자의 지휘로 연주되었다. 이로써 이 곡은 차이콥스키의 작품 중에서 독주악기와 관현악을 위한 마지막 작품이 되었다.

이 곡의 제목은 ‘쌍시곡 풍의 소품’이라는 의미지만, 작품 전체의 분위기는 중후하고 애조를 띠고 있다. 어두운 서주로 시작한 후, 관악기와 현악기를 대조시킨 관현악으로 감성을 자극한다. 그리고 첼로는 서정적이고 애수가 가득한 주제를 연주한다. 후반부에 이르면 이전과 대조적으로 빠른 속도로 연주하며 지극히 기교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하지만 곧 주제로 돌아와 분위기를 진정시키고,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기교적인 연주를 잠깐 들려주고 마무리한다. 브란두코프는 당시 연주자들이 흔히 그랬듯이, 이 곡의 기교적인 부분을 자의적으로 수정하여 연주했는데, 오늘날 이 두 버전 중 하나를 선택하여 연주한다.

피아노 협주곡 1번 내림나단조, 작품 23

Piano Concerto No. 1 in b b minor, Op. 23

19세기 러시아에서 차이콥스키는 매우 독보적인 작곡가였다. 그는 러시아인으로서 자국의 음악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었으며, 또한 서유럽, 특히 자유롭고 환상적인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낭만적인 언어에 통달해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특징은 고전적인 형식미를 중요시했던 당시 러시아 음악계에서 인정받기는 쉽지 않았다.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환상곡 풍의 차이콥스키의 음악은 방종에 가까웠으며, 따라서 혹평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1875년에 작곡된 <피아노 협주곡 1번>은 그 대표적인 경우였다.

차이콥스키는 피아노를 연주했지만, 30대 중반까지 피아노를 위해서는 소품 수준의 작품만을 작곡했다. 당시까지의 대표작은 <교향곡 1번 ‘겨울의 환상’>(1866)과 <교향곡 2번 ‘소러시아’>(1872), 교향시 <태풍>(1864), 발레 <백조의 호수>(1875-76) 등으로, 관현악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런데 1874년 11월에 갑작스레 피아노 협주곡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으며, 해를 넘기기 전에 <피아노 협주곡 1번>을 완성했다.

차이콥스키는 샘솟는 영감의 소산에 대해 큰 만족과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피아노 테크닉만은 자신이 없던 터라, 크리스마스 이브에 모스크바 음악원의 동료 교수였던 니콜라이 루빈스타인(Nikolai Rubinstein)과 니콜라이 후버트(Nikolai Hubert)에게 조언을 구하기 위해 선보이는 자리를 마련했다. 하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가혹한 혹평뿐이었다. 특히 루빈스타인은 한동안의 무거운 침묵 후에 “다른 작품을 차용했다”, “두 세 페이지만 쓸모가 있다”, “피아노 파트는 서툴러서 연주가 불가능하다” 등 매서운 질책을 날렸다. 루빈스타인은 차이콥스키의 <교향곡 1번>을 니콜라이의 형이었던 안톤 루빈스타인의 혹평에도 불구하고 흔쾌히 지휘해준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비판은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그의 비판이 3년 후 차이콥스키의 후원자였던 폰 메크 부인에게 보내는 편지에 등장하는 것을 보면, 뒤끝이 쉽게 가지지 않았던 것 같다.

“나는 음표 한 개도 고치지 않을 거야. 온전히 이대로 출판할거라고!” 차이콥스키는 그들의 비판을 수용하지 않았다. 본래 루빈스타인에게 헌정할 계획이었지만 자신의 수제자인 세르게이 타네예프(Sergei Taneyev)로 바꿨다가 다시 한스 폰 빌로(Hans von Bülow)로 수정했다. 빌로는 독일 최고의 피아니스트이자 지휘자로, 이전에도 여러 차례 차이콥스키의 곡을 연주했다. 그는 이 곡을 1875년 10월 25일에 미국 보스턴에서 초연했다. 이 연주회는 매우 성공적이어서, 앵콜로 마지막 악장을 두 번이나 연주했다.

사실 이 곡에 대한 비판은 어느 정도 합당한 것이었다. 예를 들면, 1악장의 힘찬 팡파르의 짧은 서주 후에 등장하는 바이올린 주제는 두 번 다시 등장하지 않는다! 이 유명한 선율은 소나타 형식의 1주제처럼 보이지만 사실 여전히 서주 부분으로, 지나치게 긴 서주는 서주로서의 기능을 넘어서고 형식적 균형을 깨뜨린다. 그리고 조성의 변화도 기존의 관례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으며, 거대한 1악장에 2, 3악장이 부속곡으로 뒤따라 붙은 것 같은 가분수적인 구조에서는 전체의 균형을 고민한 흔적조차 보이지 않는다. (사실 <교향곡 2번>, <교향곡 4번>, <교향곡 6번 ‘비창’>, <바이올린 협주곡>, <피아노 협주곡 2번> 등에서도 가분수적인 특징들을 찾아볼 수 있다. 이렇게 고전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작곡되어 ‘환상곡 풍’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피아니스트에게 지나친 육체적 피로를 가중시키는 부분들도 있었고, 심지어 관현악에 묻혀 들릴 수 없는 부분도 있었다. 영감에 의해 일필휘지로 작곡되어 나타난 이러한 문제들은, 인텔리 음악가였던 루빈스타인에게 받아들여질 리가 만무했다.

다행히도 이러한 갈등은 얼마 되지 않아 풀어졌다. 루빈스타인은 그 해 12월 3일 모스크바에서 자신의 지휘와 타네예프의 독주로 이 곡을 연주했으며, 이후에도 즐겨 무대에 올렸다. 차이콥스키도 마음을 바꾸어 독일의 피아니스트인 에드바르트 단로이터(Edward Dannreuther)의 조언을 수용하여 1879년에 수정판을 만들었으며, 여기에 러시아의 피아니스트 알렉산드르 질로티(Alexander Ziloti)의 조언을 추가하여 1889년에 최종판을 출판했다. 그래서 오늘날 연주되는 <피아노 협주곡 1번>은 루빈스타인이 혹평했던 그 음악과는 약간의 거리가 있다.

하지만 루빈스타인이 말했던 ‘차용’은 남아있다. 1악장에서 도입부가 끝나고 호른이 연주된 후 등장하는 종종걸음과 같은 제1주제는 여동생이 살았던 카멘카 지역의 거리에서 들었던 장님들의 우크라이나 민요에서 가져왔으며, 2악장의 여유로운 첫 주제 부분이 끝나고 몹시 빨라지는 중간 부분에 비올라와 첼로로 연주되는 주제는 프랑스 샹송 ‘춤추고 웃으며 삶을 즐겨라’(Il faut s’amuser, danser et rire)의 선율이다. 3악장의 첫 피아노 주제는 우크라이나 민요 ‘가거라, 가거라, 이반’(Види види, Иваньку)이다.

차이콥스키가 이 곡을 작곡할 당시 우크라이나를 들렀었기 때문에 그곳 민요가 사용된 것은 이해가 되지만, 샹송이 들어가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차이콥스키와 약혼했지만 결혼에 이르지 못했던 소프라노 데지레 아르토(Désirée Artôt)의 애창곡이었기 때문이었다. 1868년에 아르토는 차이콥스키의 동성애적 성향과 아르토의 출세 가도를 염려하는 주변 사람들의 반대로 갑자기 다른 사람과 결혼해버렸다. 그럼에도 차이콥스키는 평생 아르토를 잊지 못하여 그녀에게 작품을 헌정하기도 했고, 음악활동 중에 마주치게 되면 식사를 함께 하거나 파티에 참석하는 등 관계를 유지했다. 샹송 선율을 앞선 2악장의 첫 플루트 선율은 아르토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 같다.

로코코 주제에 의한 변주곡, 작품 33

Variations on a Rococo Theme in A Major, Op. 33

차이콥스키의 <로코코 주제에 의한 변주곡>(1876-77)은 <피아노 협주곡 1번>(1875) 이후 <교향곡 4번>(1877), 오페라 <에프게니 오네긴>(1878), <바이올린 협주곡>(1878) 등으로 이어지는 걸작의 행렬에 속한 작품으로, 첼로와 관현악을 위해 작곡된 러시아 작곡가의 작품 중에서 가장 자주 연주되는 곡일 것이다. 이 곡의 주안점은 모차르트에 대한 경의에 있다. 차이콥스키는 모차르트를 '음악의 예수'라고 말할 정도로 숭상했으며, <로코코 변주곡>과 <현을 위한 세레나데>(1880), <모음곡 4번 '모차르티아나'>(1887) 등을 통해 모차르트에게 음악적 찬사를 보냈다. 이중 <로코코 변주곡>은 전형적인 18세기적 스타일인 8마디가 반복되는 주제 선율의 스타일, 주제 제시 후 여덟 개의 변주가 진행되고 코다로 마무리하는 전형적인 변주곡 형식, 모차르트 시대에 유행했던 '로코코'라는 제목 등, 그 시기의 특징을 다각도로 도입했다. 여기서 '로코코'란 부정형적이고 과장된 곡선이 많이 사용되며 균형이 맞지 않는 스타일을 이르는 말로, 부드럽고 감각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다. 첼로 선율이 이러한 특징을 보이는 것도 제목과 매치된다.

이 곡은 모스크바 음악원의 동료 교수였던 첼리스트 빌헬름 피첸하겐(Wilhelm Fitzenhagen)에게 헌정되었으며, 그에 의해 초연되었다. 그런데 피첸하겐은 작곡가의 동의 없이 제8변주를 삭제하고 변주의 순서를 뒤죽박죽 바꾸었다! 원곡 기준으로 보면 '주제-1번-2번(5번 엔딩)-6번-7번-4번-5번(2번 엔딩)-3번-코다'의 순서가 된다. 그는 원곡대로 연주해달라는 작곡자의 요청에도 자신의 버전만을 자주 연주했으며, 결국 차이콥스키는 생전에 오리지널 버전을 듣지 못했다. 오늘날에는 여덟 개의 변주로 구성된 차이콥스키의 오리지널 버전을 연주하기도 하지만, 여전히 일곱 개의 변주로 구성된 피첸하겐의 버전이 주로 연주된다.

바이올린 협주곡 라장조, 작품 35

Violin Concerto in D Major, Op. 35

1878년 차이콥스키는 <바이올린 협주곡>을 작곡하는 동안 스위스에 머물고 있었다. 그가 조국을 떠나 이곳에 머물게 된 이유는 바로 결혼 때문이었다. 이전에 차이콥스키는 5살 연상의 소프라노 데지레 아르토와 결혼하려고 했던 적이 있었다. 동성애자인 차이콥스키가 결혼을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동성애의 욕구를 연상의 여인으로부터 느끼는 모성애로 억누를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1868년에 아르토는 차이콥스키의 동성애적 성향과 아르토의 출세가도를 염려하는 주변 사람들의 반대로 갑자기 다른 사람과 결혼했고, 이에 차이콥스키는 애써 감추었던 동성애 성향을 더 이상 제어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런데 19세기 후반에 접어들어 동성애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동성애자들이 자신의 성향을 숨기기 위해 결혼을 시도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차이콥스키의 동성애 애인이었던 블라디미르 실롭스키(Vladimir Silovsky)도 세간의 소문을 잠재우기 위해 1877년에 여성과의 결혼을 선택했다. 이에 큰 충격을 받은 차이콥스키는 그 해 여름에 자신을 짝사랑하는 제자 안토니나 밀류코바(Antonina Miliukova)와 충동적으로 결혼하고 말았다.

이러한 결혼이 행복할 리가 없었다. 많은 갈등을 겪은 차이콥스키는 결국 6주 만에 집을 뛰쳐나왔다. (차이콥스키는 마음을 다잡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강에 뛰어들어 자살을 시도하는 등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었다. 결국 영원한 별거에 들어갔다. 그럼에도 그는 이혼을 하지 않았으며, 꾸준히 아내에게 생활비를 보냈다.) 우선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동생의 집에 들렀다가 이듬해에 스위스의 제네바 부근 레만 호수에 있는 클라렌스로 요양을 떠났다.

이곳에 모스크바 음악원의 제자였던 바이올리니스트 이오시프 코테크(Iosif Kotek)가 찾아왔다. 코테크는 에두아르 드 탈로의 바이올린과 관현악을 위한 <에스파냐 교향곡>의 악보를 갖고 있었는데, 차이콥스키는 코테크와 이 곡을 연주하면서 큰 감동을 받았다. 이에 대해서는 차이콥스키의 후원자였던 폰 메크 부인에게 보낸 편지에 잘 나타나 있다. "탈로는 ... 새로운 음악적 아름다움을 만드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불같은 의욕을 가지고 새로운 바이올린 협주곡을 쓰려고 합니다."

차이콥스키는 <바이올린 협주곡>의 초안을 11일 만에, 전체 총보를 2주 만에 완성했다. (이 와중에 2악장을 완전히 다시 쓰기도 했는데, 원곡은 나중에 <명상곡, Op. 42-1>이 되었다.) 그는 바이올린 테크닉에 대해서 코테크의 조언을 반영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신이 있었다. 최소한 <피아노 협주곡 1번>을 작곡했을 때 동료들로부터 받았던 '서툴다'라는 혹평은 없을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이다. 하지만 초연까지의 험난한 여정은 <피아노 협주곡 1번>과 많이 다르지 않았다. 우선 코테크가 초연을 망설였다! 자신이 이 곡을 초연하면 차이콥스키와의 동성에 관계가 들쭉날쭉도 있고, 또한 만약 이 곡이 실패한다면 이제 시작하는 자신의 커리어에 흠집이 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그래서 차이콥스키는 헝가리 출신으로서 상트페테르부르크 음악원에서 가르치고 있는 레오폴트 아우어에게 초연을 의뢰했다. 아우어는 1875년에 차이콥스키에게 <우울한 세레나데>를 위촉했으며, 차이콥스키는 이 곡을 아우어에게 헌정했던 친분이 있었다. 또한 아우어는 차이콥스키의 현악사중주도 연주한 적이 있었다. 아우어는 <바이올린 협주곡>의 초연을 흔쾌히 받아들였다. 하지만 얼마 있지 않아 독주 파트에 바이올린의 특징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작곡가가 원하는 사운드를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초연을 취소했다.

"아우어와 같은 최고의 권위자로부터 연주 불가능이라는 판정을 받다니! 나의 상상력으로 탄생한 이 곡은 빛을 보지 못하고 버려지게 되었구나." <피아노 협주곡 1번>에서의 트라우마가 다시 고개를 드러는 순간, 신은 이 작품에 이러한 운명을 지우지 않았다. 1879년에 독일의 바이올리니스트인 레오폴트 담로쉬(Leopold Damrosch)가 뉴욕에서 이 곡을 바이올린과 피아노로 연주하였으며, (아우어가 의뢰했지만) <우울한 세레나데>를 초연했던 아돌프 브로드스키(Adolph Brodsky)가 1881년에 이 곡을 온전히 초연하면서 비로소 빛을 보게 되었다.

사실 차이콥스키가 브로드스키에게 초연을 의뢰한 것은 보다 이른 1879년이였다. 브로드스키는 고심 끝에 이 곡에 확신을 가지게 되기까지 2년이 걸렸다. 하지만, 빈에서 열렸던 초연에서 브로드스키는 갈채를 받았지만, 관현악은 소극적인 연주로 야유를 받았다. 실패하지 않기 위해 관현악을 작게 연주한 것이 도리어 화근이 된 것이다. 그럼에도 브로드스키는 이 곡을 계속 연주하여 널리 알렸으며, 바이올린 협주곡 레퍼토리로 정착시켰다.

초연을 들었던 독일의 유명한 비평가 한슬리크는 "러시아의 냄새가 난다"고 혹평했다. 틀린 말이 아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 곡에서 "러시아의 향취"를 느끼길 바란다. 오늘날 이 곡이 사랑받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글 | 송주호(음악칼럼니스트)

피아니스트
마오 후지타

Mao FUJITA
Piano

피아노 부문 2위



마오 후지타는 3살 때 피아노를 시작하였으며, 현재 도쿄음악대학에서 수학 중이다.

2010년 대만 월드 클래식 콩쿠르 주니어 부문에서 1위에 올랐으며, 2013년 비엔나 로사리오 마르치아노 국제 피아노 콩쿠르, 2015년 주하이 모차르트 국제 청소년 콩쿠르, 2016년 미국 지나 바카우어 국제 영아티스트 피아노 콩쿠르 등 수많은 대회에서 입상하였다. 2017년에는 스위스에서 열린 클라라 하스킬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3개의 특별상과 함께 우승을 거머쥐었다.

Began his piano studies at the age of three. Currently studies at the Tokyo College of Music.

Prize-winner at numerous national and international competitions such as the World Classic in Taiwan (2010, 1st prize in the Junior Section), the Rosario Marciano International Piano Competition in Vienna (Austria, 2013), the Zhuhai International Mozart Competition for Young Musicians (2015), the Gina Bachauer International Young Artists Piano Competition (USA, 2016) and many others. In 2017 he won the 1st prize as well as three special prizes at the Concours International de Piano Clara Haskil in Switzerland.

바이올리니스트
세르게이 도가딘

Sergei DOGADIN
Violin

바이올린 부문 1위



세르게이 도가딘은 상트페테르부르크 립스키-코르사코프 음악원에서 블라디미르 오브차레크와 안드레이 도가딘을 사사했다. 2012년에는 국제 메뉴힌 음악 아카데미에서 막심 벤게로프의 가르침을 받았고, 이후 쾰른 국립 음악대학에서 미하엘라 마틴을 사사했다. 그라츠 카를 프란츠 대학교에서 보리스 쿠시니어의 지도 아래 학업을 이어가던 그는 이후 쿠시니어를 따라 비엔나 음악대학에서도 수학했다.

세르게이 도가딘은 또한 수많은 국제 대회에서 수상하였는데, 14회 차이콥스키 콩쿠르 1위 없는 2위, 9회 독일 하노버 요아힘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 1위, 싱가포르 국제 콩쿠르에서 우승한 바 있다.

세르게이 도가딘은 현재 베니스 1721년산 도메니코 몬타냐나 바이올린을 사용하고 있다.

Graduated from the St Petersburg State Rimsky-Korsakov Conservatory (classes of Professor Vladimir Ovcharek and Professor Andrei Dogadin). Studied at the International Menuhin Music Academy (IMMA) with Maxim Vengerov (2012). Completed his postgraduate course at Hochschule für Musik und Tanz Köln (class of Professor Mihaela Martin) and the Karl-Franzens-Universität Graz (class of Professor Boris Kuschmir, under the guidance of whom Sergey continues to hone his skills at the Music and Arts University in Vienna).

Prize-winner at numerous international competitions, such as the XIV International Tchaikovsky Competition (2nd prize and Audience Prize, 1st prize was not awarded), the 9th Joseph Joachim International Violin Competition in Hannover (1st prize) and the Singapore International Violin Competition (1st prize). Plays a Domenico Montagnana violin (Venice, 1721).



첼리스트
산티아고 카논 발렌시아

Santiago CANON-VALENCIA
Cello

첼로 부문 2위

산티아고 카논 발렌시아는 현재 크론베르크 아카데미에서 볼프강 엠마누엘 슈미트를 사사하고 있다.

그는 브뤼셀 필하모닉, 헝가리안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 모스크바 솔로이스츠, 왈롱 로열 체임버 오케스트라, 오르페우스 체임버 오케스트라 외 여러 앙상블과 협연했다. 2011년부터 마이라 & 에드문도 에스케나지 장학금을 받고 있으며, 2016년에는 스피그스 재단으로부터 M파워 아티스트 후원금을 수여받았다.

또한 2017년 스폴레토 페스티벌에서 권위있는 모니니 상을 수상하였고, 2018년에는 야노스 슈타커상 수상자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이외에도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스피그스 콩쿠르, 파블로 카잘스 국제 첼로 콩쿠르, 가르파르 카사도 국제 콩쿠르와 베이징 첼로 콩쿠르에서 입상하였다.

Santiago Canon-Valencia is a student of Wolfgang Emanuel Schmidt at the Kronberg Academy.

His recent debuts include solo engagements with the Brussels Philharmonic, the Hungarian Radio Symphony Orchestra, the Moscow Soloists, the Orchestre Royal de Chambre de Wallonie, the Orpheus Chamber Orchestra and other ensembles. From 2011 he has been a recipient of the Mayra & Edmundo Esquenazi scholarship. He is also a recipient of the MPower Artist Grants by the Sphinx Organization (2016).

He was awarded the prestigious Monini Prize at the Spoleto Festival (2017). winner of the Janos Starker Foundation Award (2018).

Major prize winner at the Queen Elisabeth Competition, the Sphinx Competition, the Pablo International Cello Competition, the Gaspar Cassado International Competition and the Beijing International Cello Competition.



첼리스트
문태국

Taeguk MUN
Cello

첼로 부문 4위

문태국은 독일 올텐부르크 청소년 국제 콩쿠르 1위, 2011년 제3회 앙드레 나바라 국제 첼로 콩쿠르 1위, 2014년 파블로 카잘스 국제 첼로 콩쿠르 1위를 비롯한 국내외의 수많은 콩쿠르에서 우승을 하였다. 2016년에는 제 1회 야노스 슈타커상의 수상자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그는 툴루즈 심포니 오케스트라, 헝가리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 등과 협연하였으며, 프랑스 루브르박물관, 헝가리 부다페스트 스프링 페스티벌에서 공연하였다.

문태국은 (재)성정문화재단과 황진장학회에서 후원을 받고 있으며 제2회 SK케미칼 '그리움(G.rium) 아티스트 상'을 수상하였다. 삼성문화재단의 후원으로 밀란 1697년산 지오반니 그란치노를 사용하고 있다. 2019년 2월에는 워너 뮤직 인터내셔널 레이블로 데뷔앨범 <첼로의 노래>를 발매하였다.

Taeguk Mun has been the first prize winner of various competitions, such as 2014 Pablo Casals International Cello Competition, the Third Andre Navarra International Cello Competition, the International Competition for Young People in Oldenburg, Germany. Taeguk Mun has played solo performances in Korea, France, Hungary, and the United States, including the Carnegie Hall, Merkin Concert Hall, Louvre Museum, and in Budapest Spring Festival.

Taeguk Mun is supported by SungJung Cultural Foundation, Hwangjin Scholarship Committee and was selected as a "G.rium Artist" by SK Chemicals. Taeguk is the first recipient of Janos Starker Award. Taeguk Mun plays the cello made by Giovanni Grancino in 1697 from Milan, generously on loan from Samsung Cultural Foundation of Korea.



지휘자
노리치카 이이모리

Norichika IIMORI
Conductor

노리치카 이이모리는 일본의 도호 음악원에서 지휘과를 졸업하였다.

2003년 NHK 심포니 오케스트라와의 첫 정기연주회에서 말러의 교향곡 1번 지휘를 성공적으로 마친 이이모리는 프랑크프루트 방송 교향악단, 쾰른 방송 교향악단, 체코 필하모닉과 프라하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포함한 다수의 세계적 수준의 오케스트라로부터 지휘자로 초청받았다. 2001년에는 뷔템베르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총감독으로 부임하여 베토벤 교향곡 전곡을 녹음하고 일본 투어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이모리는 현재 야마가타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음악 감독이자 일본 센추리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수석지휘자, 도쿄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상임지휘자, 그리고 뷔템베르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수석 객원지휘자이다.

Norichika Iimori graduated from the conducting department of Toho Gakuen School of Music.

In 2003, in his first appearance in a regular concert of the NHK Symphony Orchestra, Iimori conducted a successful performance of Mahler's First Symphony.

Iimori has been invited to conduct many world-class orchestras including the Radio Symphony Orchestra Frankfurt, Cologne Radio Symphony Orchestra, Czech Philharmonic, and Prague Symphony Orchestra. In 2001 he became General Managing Director of the Württemberg Philharmonic Orchestra, with which he recorded the complete Beethoven Symphonies and carried out a successful Japan tour.

Currently, Norichika Iimori is Music Director of the Yamagata Symphony Orchestra, Principal Conductor of the Japan Century Symphony Orchestra, Resident Conductor of the Tokyo Symphony Orchestra, and Principal Guest Conductor of the Württemberg Philharmonic Orchestra.

디토
오케스트라

DITTO
Orchestra



2008년 조직된 디토 오케스트라는 대한민국 대표 클래식 축제 디토 페스티벌의 상주 오케스트라 및 안양 문화재단과 서초문화재단의 상주단체를 역임한 바 있으며, DMZ 평화콘서트, 크레디아 파크 콘서트, 슬라슬라 페스티벌(라라랜드 인 콘서트) 등 국내 대형 클래식 공연의 주요 단체로 활동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젊은 지휘자 정민과 아드리엘 김이 수석지휘자를 역임했으며, 악장과 단원들은 모두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뛰어난 실력을 지닌 젊은 연주자로 구성되어 있다. 김대진(창원시립교향악단 음악감독), 이병욱, 최수열, 와드 스테어, 혼나 테츠지 등의 지휘자와 함께 했으며, 비올리스트 리처드 용재 오닐, 소프라노 조수미, 피아니스트 임동혁, 김정원, 바이올리니스트 고토 류, 신지아, 기타리스트 무라지 카오리 등 유수의 연주자들과 협연 한 바 있다. 앞으로 패밀리 콘서트, 관객개발 사업, 음악 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활동을 선보이며, 보다 젊은 에너지를 선사할 것이다.

DITTO Orchestra, founded in 2008, is not only an orchestra in residence for DITTO Festival but also an orchestra that have played at major classical concerts in Korea like 8.15 DMZ Peace Concert and Park Concert.

DITTO Orchestra is acclaimed for its wide repertoire and youthful energy. Young and globally recognized, Min Chung and Adriel Kim worked as principal conductors of the orchestra.

Since the foundation in 2008, Daejin Kim, Christopher Lee, Ward Stare, Honna Tetsuji, Soo-Yeol Choi, and other famous conductors have led the orchestra. Also, the orchestra had played with world-renowned classical players like Pianist Dong Hyek Lim, Violinist Goto Ryu, Zia (Hyunsu) Shin, and Guitarist Muraji Kaori.

바이올린 부문 1위

세르게이 도가딘

Q. 2011년 차이코프스키 콩쿠르에서 1위없는 2위를 수상했다. 이후 2019년 다시 같은 콩쿠르에 다시 도전한 이유는 무엇인가?

A. 차이코프스키 콩쿠르는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바이올린 콩쿠르 중 하나이다. 바이올린뿐만 아니라 다른 부문도 그렇지만, 특히 러시아 바이올리니스트에게 있어 이 콩쿠르는 더더욱 일생에 가장 중요한 대회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2011년도에 참가했을 때 나는 22살의 매우 어린 연주자였다. 이 대회 이전까지만 해도 러시아에서만 음악을 공부했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경험의 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 2위를 수상한 2011년 이후 유럽의 많은 명문 학교에서 막심 벤게로프, 미하엘라 마틴, 보리스 쿠시니어 등 뛰어난 스승에게 배우며 이번이 다시 한 번 도전할 가장 적당한 때라고 생각했다. 또한 30살이 되었기 때문에 도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도 했다.

Q. 러시아를 시작으로 독일, 오스트리아 등 다양한 나라에서 배웠다. 각각의 나라에서 새로운 영감을 받을 수 있었나?

A. 당연하다. 하지만 나의 경우 각각의 나라보다는 내가 가르침을 받았던 학교의 여러 스승에게서 받은 영감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여러 나라의 생활 방식이나 문화들로부터 받는 영감도 중요하지만, 전 세계의 위대한 바이올리니스트들로부터 지식을 전수받는 것을 꿈꿨기 때문이다. 공부한 여러 나라들이 유럽에 있고, 독일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들이 공유하는 문화의 차이가 미국과 러시아, 러시아와 일본, 러시아와 한국처럼 크지 않고 비슷했다고 생각한다.

Q. 콩쿠르에 도전할 때 어떤 부분을 중점으로 준비를 해나가야 할까?

A. 무척 어려운 질문이다. 우선은 대회에서 연주할 프로그램을 선정하는 순간부터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곡을 선택해야 한다. 연주자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회에서 연주할 수 있는 곡의 선택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연주자 본인만의 강점이 무엇인지를 (예를 들면 고전 음악, 낭만 음악, 20세기 음악 등) 정확히 파악하고 현명하게 곡을 고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두 번째는 콩쿠르를 준비할 때에는 200%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대회 이전에 같은 프로그램으로 무대 위에서 연주해보는 등 자신이 실제 콩쿠르에서 심사위원과 청중 앞에서 어떻게 연주를 할 지 미리 대비해두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은 건 바흐나 모차르트, 베토벤 등 고전 음악을 연주할 때, 정말 뛰어난 거장들은 자신의 개성을 마음껏 드러내기도 하고 자유롭게 연주하기도 하지만, 콩쿠르에 참가하는 젊은 연주자들은 대회가 여타 연주회와는 같지 않다는 것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콩쿠르는 그만큼 자유로운 무대가 아니기 때문에 가슴은 콘서트에서 연주하는 것처럼 연주하되, 머리로 보나 현명하고 지적으로 연주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Q. 이번 음악회에서 차이코프스키 <협주곡 D장조, Op.35>를 연주한다. 러시아인이 느끼는 그의 작품은 어떤 느낌인가?

A. 아무래도 내가 러시아인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 곡에 대해서 느끼는 바와 비교해서 이를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우선 이 곡은 모든 바이올리니스트라면 꼭 한 번씩은 연주해봐야 할 가장 중요한 협주곡 중 하나이다. 나 또한 이 곡을 적어도 200번 이상 수없이 연주해왔고, 이번에 서울에서 열리는 연주회에서 이 곡을 연주하게 되어 무척 기쁘고, 나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작품은 무척 행복한 음악이다. 우리는 차이코프스키가 그다지 행복한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 곡은 그의 삶이 행복했을 때의 감정을 담았다고 생각한다. 또한 러시아인들의 영혼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아, 행복함뿐만 아니라 때로는 그의 음악이 갖는 매우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이자 무척 러시아스러운 감정인 슬픈 행복(Sad Happiness) 등 많은 감정들을 담고 있다. 마지막 악장의 일부분을 예로 들자면 순수한 행복과 러시아 스타일의 멜로디를 담고 있어, 이 음악을 듣는 모두가 '이것이 바로 진짜 러시아다운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끔 한다.

Q. 음악가, 연주자로서 언제 가장 행복함을 느끼는가?

A. 무대에서 가장 행복함을 느낀다. 나뿐만 아니라 모든 음악가들이 그러하겠지만 무대에 오르는 것은 무척 중요한 일이다. 우리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던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나의 경우 누군가를 위해 연주를 하며 웃음이나 사랑, 행복, 슬픔 등 우리의 영혼과 감정을 나눌 수 있어 가장 행복하다.

첼로 부문 2위

산티아고 카논 발렌시아

Q. 이번 차이코프스키 콩쿠르에 도전하게 된 계기가 궁금하다.

A. 이번 콩쿠르 참가자 모두 그들의 인생에 몇 가지 포인트로 이 대회에 참가했을 것이다. 나 역시 그들과 같다. 16~17세 쯤부터 이 대회에 참가할거라고 생각했고, 나의 목표는 매 라운드 최선을 다하는 것이었다. 이는 사실 대회가 경쟁이라는 것을 잊어버린다는 의미이다. 최고의 라운드는 콘서트처럼 느껴지는 라운드이다.

Q. 콩쿠르에서 연주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A. 앞서 언급했듯 최고의 라운드는 콘서트처럼 느껴지는 라운드이기에 콘서트와 차이가 없게 콩쿠르의 때 라운드에 임해야 한다. 물론 그렇게 하는 것보다 말하는 것이 쉽지만 적어도 나에게는 가장 이상적인 상황이다.

Q. 요즘 젊은 세대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는 무궁무진한데, 그 중 클래식 음악은 어떤 즐거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A. 사람들은 그들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한다. 클래식 음악은 어떤 사람들에게 또 다른 타입의 음악이라고 간주 될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기꺼이 듣고 좋아하는 유일한 음악일 수도 있다. 클래식 음악은 여전히 '늙은 사람들을 위한 음악', '지루한 음악'이라는 고정관념과 맞서싸우고 있다. 이는 대부분 음악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에게서 비롯됐다. 어쨌든 우리는 수백년 전 쓰여진 이 음악을 계속 연주하고, 공부하고, 녹음하고 있기 때문에 클래식 음악이 여전히 전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한 '행복'을 가져다주는 음악으로 남아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내고 있다.

Q. 사람들에게 어떤 음악가로 기억에 남고 싶은가. 10년 후의 자신의 모습을 떠올려보면?

A. 기억에 남는다는 것 자체가 최고의 단어라고 생각한다. 모든 공연을 기억에 남는 경험으로 만들고자 한다. 10년 후의 나의 모습은 지금부터 꽤 오랜시간이 걸리겠지만, 여전히 배우고 성장하며 그 길을 따라서 매일 매일을 살아가고 있을 것이다.

글 | 정소연 (티 스트라드 The Strad 2019년 10월호 발췌)

제16회 차이콥스키 콩쿠르 우승자 갈라콘서트

후지타 마오가 전하는 차이콥스키의 <피아노 협주곡 제1번>의 감동

올해 61주년을 맞은 차이콥스키 콩쿠르는 러시아 태생의 작곡가인 표트르 일리치 차이콥스키를 기념하여 4년마다 개최되어 왔다.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쇼팽 콩쿠르와 함께 세계 3대 콩쿠르로 꼽힌다. 차이콥스키 콩쿠르 우승자들은 전 세계의 주요 무대에서 투어 공연을 가진다. 한국 공연에는 피아노 부문 2위 수상자 후지타 마오와 다수의 클래식 스타들이 오는 10월, 갈라콘서트를 펼칠 예정이다. (이하 중략)

“10월에 있을 공연을 위해 처음으로 한국에 방문하는데요, 매우 기대됩니다. 또한, 러시아, 유럽 및 미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 공연을 기대하고 있습니다.”(이하 피아니스트 후지타 마오)

후지타 마오가 전하는 차이콥스키의 우수

“저는 결승에 진출했다는 사실에도 놀랐지만, 2위를 수상했다는 사실에 더욱 놀랐습니다. 제게 매우 큰 영광을 안겨주었죠. 결승 무대에서 두 곡의 피아노 협주곡을 연주한 것은 저에게 처음 있는 일이었기에, 상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체력과 집중력이 필요했습니다. 조금은 더 잘 연주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조금 남습니다.”

올해 스무 살이 된 후지타 마오는 도쿄 음악대학에서 수학 중이다. 그는 로사리오 마르치아노 국제 피아노 콩쿠르, 주하이 모차르트 국제 청소년 콩쿠르, 지나 바카우어 국제 영아티스트 피아노 콩쿠르 등 수많은 콩쿠르에서 수상하였다. 2017년 클라라 하스킬 콩쿠르에서 3개의 특별상과 더불어 1위를 수상하였으며, 2019년 차이콥스키 콩쿠르에서 피아노 부문 공동 2위에 오른 저력 있는 피아니스트이다.

“저는 언제나 아름다운 음색을 추구합니다. 어떻게 하면 피아노 본연의 음색으로부터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늘 고민하죠. 저의 손끝을 통해 나오는 음악에 책임감을 느낍니다. 또한, 작곡가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작곡가가 무엇을 느꼈는지 이해하고, 그것을 잘 표현해내기 위해서는 작품이 쓰인 시기의 역사를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고의 연주를 위해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깊은 연구를 거듭한 끝에 흘러나오는 그의 음악은 마치 한 방울씩 오랜 시간을 거쳐 고인 증류수를 떠올리게 한다.

“제가 들었던 격려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판사 Menahem Pressler 씨의 말이었습니다. 그는 “당신의 연주로부터 음악성과 테크닉적인 부분 모두에서 감동받았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감명 깊었던 점은 음악을 통해 체험할 수 있었던 당신의 인격적인 성품이었습니다. 부디 순수한 마음을 유지해 음악의 기쁨을 청중에게 전해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격려가 제게 모종의 울림을 주었죠.”

그의 음악이 콩쿠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게 된 이유는 매순간 진정성과 책임감을 다하기 때문이 아닐까. 웅대하고도 특유의 우수어린 선율이 가득한 차이콥스키의 <피아노 협주곡 제1번>이 한 피아니스트의 순수한 성품을 통해 어떤 감동을 선사해줄지 매우 기대된다.

글 | 김다솜 기자 (월간 피아노음악 10월호 발췌)

미샤 마이스키 & 무직콜레기움 빈터투어

지휘 토마스 체트마이어

MISCHA MAISKY | MUSIKKOLLEGIUM WINTERTHUR | THOMAS ZEHETMAIR



베토벤 에그몬트 서곡 Op.84 | 슈만 첼로 협주곡 Op.129 | 브루흐 콜 니드라이 Op.47 | 베토벤 교향곡 5번 Op.67 '운명'

2019.10.25 FRI 8 PM |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10.24.THU 강릉아트센터 | 10.26.SAT 대구콘서트하우스

주최 CREEDIA MUSIC & ARTISTS 후원 KOREAN AIR 5 R석 15만원 | S석 12만원 | A석 8만원 | B석 4만원 예매 CLUB BALCONY 1577-5266 인터파크 티켓 1544-1555 예술의전당 02-580-1300

지휘자 장한나가 이끄는 해외 오케스트라의 첫 내한!
특별한 무대에 화려함을 더할 피아니스트 임동혁

장한나 & 트론헤임 심포니 오케스트라

Han-Na Chang
Dong Hyeok Lim
Trondheim Symphony Orchestra

협연 피아니스트 임동혁



그리그 페르균티트 모음곡 1번 | 그리그 피아노 협주곡 A단조 (협연:임동혁) | 차이콥스키 교향곡 6번 B단조 '비창'

2019.11.13 WED 8 PM |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11.14 부산문화회관 | 11.16 대구콘서트하우스 | 11.17 익산예술의전당

주최 CREEDIA MUSIC & ARTISTS 후원 NORWEGIAN EMBASSY KOREAN AIR 5 예매 CLUB BALCONY 1577-5266 인터파크 티켓 1544-1555 예술의전당 02-580-1300

제16회 차이콥스키
국제 콩쿠르 우승자
갈라 콘서트

이 프로그램은 Club BALCONY 후원회원에게 무료로 제공됩니다.
(단, www.clubbalcony.com에서 공연을 예약한 후원회에 한함)

www.credia.co.kr

CREDIA MUSIC & ARTISTS

CREDIA
INTERNATIONAL

CREDIA
ENTERTAINMENT



CREDIA



CREDIA에 의해 창작된 프로그램북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3.0 Unported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CREDIA의 저작물에 기초

이 라이선스의 범위를 넘는 이용허락은 CREDIA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온라인 프로그램북 서비스는 클럽발코니닷컴에서 제공됩니다.

This e-book is exclusively provided by Club BALCONY.

www.clubbalcony.com